

‘택시운전사’ 김사복 매일 100만명 태우고 ‘5·18 광주’ 온다

〈영화 속 김만섭〉

흥행 돌풍 비결은

5·18 경험한 세대와 젊은 세대
함께 공감할 세트와 이야기 구성
80년 금남로 현실감 있게 묘사
배우 송강호 열연 관객 몰입 이끌어

서울에서 홀로 어린 딸을 키우는 택시기사 김만섭(송강호)에게 어느날 파란 눈의 외국인인 다가와 ‘10만원을 주겠다’며 광주까지 가져다 준다. 자신을 독일기자라고 밝힌 외국인 손님 ‘위르겐 힌츠페터’(토마스 크레취만)는 “사건이 있는 곳은 어디든 가는 것이 기자”라고 답답하게 말한다. 영문도 모른채 광주까지 운전을 하며 따라간 김만섭은 5·18민주화운동에 휘말리며 ‘진정한 인간의 도리’에 대해 느끼게 된다.

영화 ‘택시운전사’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영화는 5·18을 취재해 세계에 알린 ‘푸른 눈의 목격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그를 서울에서 광주까지 태운 택시운전사 김사복씨의 일화를 소재로 하고 있다. 2003년 제 2회 송진호 언론상을 받은 힌츠페터는 수상 소감에서 “내 눈으로 진실을 보고 전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융감한 한국인 택시운전사 김사복씨와 헌신적으로 도와준 광주의 젊은이들이 없었다면 다큐멘터리는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사복씨는 현재까지 소재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화는 5·18을 경험한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세트와 이야기 구성에 집중한 점이 특징이다.

제작진은 1980년대 느낌이 남아있는 길을 찾기 위해 5개월에 걸쳐 촬영 장소를 물색했다. 장성의 폐 고속도로와 숲 속 샛길을 비롯해 광주·마산·순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힌츠페터와 택시운전사 김만섭이 샛길을 이용해 광주로 진입하는 장면.

천·합천·대전·김천·양양·보령·의성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80년대 길을 되살려냈다.

특히, 가장 신경쓴 부분이 금남로다. 1980년대를 겪은 광주시민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부적인 묘사에 치중했다. 제작진은 5·18이 일어난지 37년이 지나며 현대적으로 변모한 금남로에서의 촬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시민공원 옆 공터에 실제 크기로 80년대 5월 금남로를 재현했다. 옛 전남도청, 전일빌딩, 분수대 등 실제 크기로 만들어진 건물들은 영화에 사실감을 더했다.

또한 ‘효자동 이발사’, ‘변호인’ 등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을 다룬 영화에 출연한 경험이 있는 주연배우 송강호의 열연도 흥행에 한몫을 한 것으로 꼽힌다. 송씨는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평범한 소시민의 눈으로 5·18을 바라보며 처음에는 남의 일로 여기다가 점차 광주 시민들에게 동화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지난 2일 캐나다 ‘제21회 판타지아영화제’에서는 “자칫 교훈적으로 흐를 수 있는



영화 속 독일 기자의 실존인물인 위르겐 힌츠페터(왼쪽 첫번째)가 1980년 5월 당시 광주 상황을 기록하던 모습. <5·18 기념재단 제공>

역사 속 이야기 안에서 섬세하고 깊이 있는 연기로 관객들을 만섭이라는 캐릭터에 몰입시켰다”는 호평과 함께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국민의당 깊은 ‘내홍’ 위기 극복 가능할까

지난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오는 27일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계기로 재기를 모색하려던 국민의당이 오히려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국민의당 대주주인 안철수 전 대표의 갑작스런 대표 도전 선언에 기존의 당권 주자들은 물론 상당수 현역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선 ‘분당론’, ‘출당론’까지 나오는 등 당이 내홍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국민의당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다당제’ 붕괴를 부르는 것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정치권의 지각변동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 출마 배경은=대선 패배 이후, 지난 7월 초 자성과 성철의 시간을 갖겠다는 안 전 대표가 대표 출마에 나선 배경에는 국민의당 위기 상황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국민의당의 미래를 이끌어갈 마땅한 인사가 없다는 현실을 감안, 위기 국면에서 과감한 정면돌파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의 재기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한 발 물러서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도모하기 보다는 사실상 정치적 ‘을인’을 통해 승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호남 중진들에게 끌려가지 않는 모습을 분명히 하면서 ‘탈 호남’을 통한 전국정당화에 나서겠다는 모습도 보인다. 민주당과 거리를 두는 극중주의 등을 내세워 명확한 중도 정당을 표명하면서 제3세력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청렴자로서 확실히 당을 장악하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치적 명분 있나=일단 안 전 대표의 대표 출마는 정치적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성철의 시간을 갖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대선 패배는 물론 제보 의혹 조작과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 등 국민의당의 위기 국면에는 안 전 대표의 인사들이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를 외면하고 출마를 강행한 것은 정치적 오만과 조급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전대에서 누가 대표로 당선되더라도 당의 단합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다는 점은 빼어난 대목이다. 전대에서 안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호남 의원들과의 반목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안 전 대표로서는 당선되더라도 상처받은 영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안 전 대표가 패배한다면 당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당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중재인 마련되나=국민의당 대표 후보 등록 시점은 오는 11일까지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셈이다. 박지원 전 대표 등이 안 전 대표 설득에 나선 예정이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전망이



전정배 의원 안철수 전 의원 정동영 의원

지배적이다. 안 전 대표의 출마는 반대 입장을 보여 온 호남 중진들에 대해 일전을 선언한 것이라는 점에서 퇴로가 없는 상황이다. 전정배, 정동영 의원도 정치적 입지 등을 감안하면 돌아설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전대에서 공동 지도부 구성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개최, 집단 지성을 통해 정치적 중재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갈등의 전대보다는 미래를 위해 단합할 수 있는 중재안을 도출, 당권 주자들에게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이다. 모두 죽는 길보다는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잡한 당내 역할 구도를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대표 경선 결과는=일단 전국적 인지도 측면 등에서 안 전 대표가 유리하다. 현재 구도에서 누가 나오더라도 6대4 정도로 안 전 대표가 우위를 점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변수는 있다. 당장 결선투표제는 물론 전정배-정동영 단일화 카드가 주목된다. 하지만 결정적 변수는 호남 민심이다. 호남 당원이 국민의당 전체 당원의 54%에 이른다. 타 지역 당원들도 호남 출신들이 주축이다. 호남에서 안 전 대표의 대표 출마에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된다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호남지역에서 안 전 대표를 지지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광주의 송기식, 전남의 손금주 의원 등 일부에 불과하다.

◇호남 민심은=지난 대선에서 호남은 안 전 대표에게 30%에 이르는 지지를 보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국민의당을 자렛대로 호남이 정치적 캐스팅 보트를 쥐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 이후, 국민의당의 지리멸렬한 모습에 호남 민심은 깊은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안 전 대표 주변에서 나오는 ‘탈 호남’과 극중주의, 바른정당과의 연대 등에 대해 거부감도 있다. ‘탈 호남’은 민주당에서 수없이 들어온 말이고 극중주의는 개혁적 중도 성향인 호남 민심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른정당보다는 민주당과의 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호남 민심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꽃잎’ ‘박하사탕’ ‘화려한 휴가’... ‘5월 광주’ 영화 뭐가 있나

‘5월 광주’를 소재로 한 영화는 꾸준히 제작돼 왔다. 장선우 감독이 1996년 제작한 ‘꽃잎’은 그 날의 광주에서 죽어가는 엄마를 버려둔 채 도망쳐 나갔던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5·18을 조명했다. 이정현의 연기가 화제가 됐으며 실제 금남로에서 촬영한 시위 장면 등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설경구의 열연이 돋보였던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1999)은 5·18을 가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영화다. 기차길 철로 위에서 주인공 영화가 ‘나 다시 돌아갈래’라고 외치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탄생시켰다. 685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도 성공한 김지훈 감독의 ‘화려한 휴가’(2007)는 1980년 5월 광주 현장을 직접적으로 다룬 작품으로 안성기·김상경·이요원 등이 주연을 맡았다. 또 강풀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26년’(조근현 감독)은 5·18 희생자 2세대들이 학살의 주역을 처단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5·18 영상 촬영 세계에 알려...5·18 구묘역에 유해 안장

힌츠페터는 누구

1937년 독일 라체부르크에서 태어난 위르겐 힌츠페터(Jürgen Hinzpeter)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독일 제1공영방송 ARD-NDR의 일본 특파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당시 광주에서 5·18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19일 일본에서 서울로 온 뒤 20일 오전 영화 ‘택시운전사’에 나온 것처럼 김사복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광주로 진입했다. 5월 23일까지 광주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을 방송 카메라에 담은 그는 당시 군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촬영한 필름을 큰 금속캔 속에 넣은 뒤 과자더미 속에 숨겨서 일본으로 반출, 독일 함부르크의 뉴스센터에 전달했다. 이 영상은 독일에서 수차례 방송됐고 외국 다른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함으로써 5·18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 힌츠페터는 ‘푸른 눈의 목격자’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오늘날 5·18 관련 영상자료는 대부분 그가 촬영한 것들이다.

1963년 독일 제1공영방송 함부르크 지국의 TV 방송국 카메라맨으로 입사했다. 1967년 동아시아 지부가 있던 홍콩으로 발령받은 후 베트남 전쟁을 취재하다가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1986년 11월에는 광화문에서 시위 취재 도중 사복경찰에게 구타당해 목과 척추에 중상을 입기도 했으며 1995년 기자직에서 은퇴한 이후에는 독일에 거주했다. 지난 2016년 1월25일 79세의 일기로 독일에서 타계했다.

그는 지난 2005년 광주를 방문해 ‘죽으면 광주에 묻어달라’며 자신의 손톱과 머리카락 등 신체 일부를 맡겼었다. 5·18기념재단은 힌츠페터가 숨지자 같은 해 5월16일 그의 아내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 등을 초청, 유해를 광주시 북구 망월동 5·18 구묘역에 안치했다. 부인 브람슈테트 여사는 8일 방한해 ‘택시운전사’를 관람할 예정이다. 5·18재단은 브람슈테트 여사를 광주로 초청해 5·18 묘역 등을 참배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

광주일보65광주일보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불받아요!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용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용량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된 소주(맥주)는 제품에 적용	2017. 1. 1. 부터 출고되는 소주(맥주)는 제품에 적용	비고
재활용병 사용량 제17조 2항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마-라미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중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청음 등

면적 150% 확대 색상 변경

4원 → 100원

인상 전

인상 후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환경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보해양조